

『머누리의 죽음』 해설

이영미*

희곡 <머누리의 죽음>은 속칭 ‘딱지본’이라고 불리는 구활자본의 소책자로 출판된 작품이다. 구활자본 소책자로 발간된 작품의 대부분은 소설과 노래로, 이 작품처럼 희곡이 출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952년 12월 30일, 세창서관에서 발행한 것인데, 이러한 딱지본 작품의 태반이 식민지시대에 창작출판된 후 이후에도 계속 증판을 거듭한 것을 생각하면, 초판의 출간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일 것으로 추측된다. 속지에는 ‘머리스말이 있고, 이를 쓴 시기를 병자맹추(丙子孟秋)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36년에 집필을 끝내고, 1936년 말이나 1937년 초에 출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판권에서 초판 시기가 사라진 것은, 해방으로 인해 연도표기의 방식이 소화(昭和)에서 단기(檀紀)로 바뀌고 출판사의 주소지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표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알 수 없다. 판권의 저작자 이름은 ‘신태삼’이나 이는 세창서관의 발행자 이름으로, 당시 이러한 딱지본 작품들에서 작자 이름 대신 발행자 이름이 저작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표지에는 제목 위에 ‘사실비극(事實悲劇)’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고, 속지에는 ‘사실극 각본(事實劇 脚本)’이라고 쓰여 있어, 이 작품이 실제 있었던 일에 근거한 작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제로 ‘一名 鐵路우에사라지는꽃(표지), ‘一名, 鐵路우에사라진꽃(속지)를 달아놓고 있어 핵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희곡이 흥미로운 것은 식민지시대의 연극으로 제목만 전해지는 <며느리의 죽음>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이 시기 신파극대중극에 대한 증언을 가장 많이 남겨놓은, 동양극장 배우 출신인 고설봉은, 그의 증언록인 『증언 연극사』(장원재 정리, 진양, 1990)에서 식민지시대의 대표적인 신파극으로 <며느리의 죽음>을 거론하고 있고, 이후 펴낸 『빙하시대의 연극마당 배우 세상』(이가책, 1996)에서는 이 작품을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두 책에서 모두 이 작품을 황금좌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그 외의 기록에서는 황금좌의 공연으로 이 작품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극작가와 연출가, 정확한 공연시기와 공연장소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딱지본 <며느리의 죽음>이 황금좌의 <며느리의 죽음>의 각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딱지본 <며느리의 죽음>은 그 머리말에서 ‘소화 구년 가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하여 ‘그도시는 물론 조선전도에 이것이 연극으로되어 순회한일이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며느리의 죽음>이 이전에 공연된 작품의 희곡을 옮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같은 소재로 새로 창작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 딱지본의 관행으로는 매우 드물게 완전한 희곡을 신고 있다는 점, 이미 공연된 연극을 밝히고 있다는 점, 새로운 창작임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작품이 공연된 작품의 희곡이거나 아니면 그 공연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거의 그대로 다시 쓴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하자면 공연된 <며느리의 죽음>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식민지시대의 대중연극은 엄청난 양에도 불구하고 그 희곡이 남아있는 작품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공연된 연극과 긴밀한 관련을 지닌 희곡이라는 점은, 이 시기 대중연극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이 자료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